





[정답] ④

[정답해설] ‘-(으)ㄴ지’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2.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일 때만 띄어 씀

예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오답해설] ① -꼴 : ‘그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붙여 씀)

예 100원꼴 / 한 명꼴 / 열 개꼴.

② -순 :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붙여 씀)

예 도착순 / 전착순 / 나이순

③ 온 : ‘전부의’ 또는 ‘모두의’의 뜻을 가진 관형사(뒷말과 띄어 씀)

예 온 집안 / 온 식구 / 온 국민

문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② 별종이 있으니,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 없는 원숭이가 그것이다.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데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두뇌뿐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그는 무척 말이 많고 탐구적이며 번식력이 왕성한 원숭이다.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 없는 원숭이는 동물이다. 따라서 털 없는 원숭이는 내 연구 대상으로서 적격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  
 ③ 해 왔고,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축적된 유산을 단번에 벗어던질 가망은 전혀 없다.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훨씬 느긋해지고 좀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물학자가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① 인간에 대해서도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② 인간은 자신이 지닌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인간의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수백만 년 전에 획득했다.

④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정답] ③

[정답해설]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해 왔고,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문 8. 다음은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광장에 걸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대한 고등학교 연수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자 내 가슴은 마구  
 ① 뛰었다.  
 ③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비행기에 오르는 나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대한 공항 청사는 곧 성냥갑처럼 작아졌고, 푸른 바다와 들판은 빙빙 돌아가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은 정말 아름다웠다.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 발은 꼭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신비의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꿈속을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가 된 걸까?’

- ① 여행의 동기와 목적                      ② 출발할 때의 감흥  
③ 출발할 때의 날씨와 시간                ④ 여행의 노정과 일정

[정답] ④

문 9.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섰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엔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 ① 모든 일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 ② 청렴한 인재 선발을 통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 ③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④ 훌륭한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사 삼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답] ③

[정답해설] 두 번째 문단의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에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알 수 있다.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동은 본래의 지명보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함경도식 먹을거리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실향민 집단 정착촌을 대표하는 곳이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 봄 바다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곳에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 ‘어울’을 끌어올려 보니, 속초의 봄 바다가 품고 있던 가자미들이 나온다. 다른 고기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이 가자미는 일 년 열두 달 꾸준히 난다. 동해를 대표하는 어종 중에 명태는 12월에서 4월, 도루묵은 10월에서 12월, 오징어는 9월에서 12월까지 주로 잡힌다. 하지만 가자미는 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들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라 한다.

청호동에서 가자미식해를 담그는 광경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라 할 만큼 유명세를 탔다. 함경도 대표 음식인 가자

미식해가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입맛이 정확하게 고향을 기억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 그리웠다. 가자미식해를 만들어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은 배타심이 아닌 호감으로 다가섰고, 또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 ① 속초 자리고기의 유래
- ②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식해
- ③ 아바이 마을의 밥상
- ④ 청호동 주민과 함경도 실향민의 화합

[정답] ②

[정답 해설] 첫째 문단에는 청호동이 ‘아바이 마을’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 둘째 문단에는 동해에서 나는 생선 중 사철 잡히는 ‘자리고기’인 ‘가자미’에 대해 언급하고, 마지막 문단에는 속초에서 유명한 ‘가자미식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②가 적절한 제목이다.

문 11.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그는 굉장한 사업 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 늘였다.
- ②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갈음
- ③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써 대처해야 한다. → 로써
- ④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어. → 틀렸어.

[정답] ①

[정답 해설]

|     |                                                                                                                                                                                                                                                             |
|-----|-------------------------------------------------------------------------------------------------------------------------------------------------------------------------------------------------------------------------------------------------------------|
| 늘리다 | 바짓단을 <u>늘리다</u> .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br>학생 수를 <u>늘리다</u> .<br>시험 시간을 30분 <u>늘리다</u> .<br>학생 수를 <u>늘리다</u> .<br>시험 시간을 30분 <u>늘리다</u> .<br>실력을 <u>늘려서</u>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br>그 집은 알뜰한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금세 재산을 <u>늘려</u> 부자가 되었다.<br>쉬는 시간을 <u>늘리다</u> . |
| 늘이다 | 고무줄을 <u>늘이다</u> . (본디보다 길게 하다)<br>엿가락을 <u>늘이다</u> .<br>찬조 연설자가 단상 앞으로 나와 엿비슷한 말들을 엿가락처럼 <u>늘여</u> 되풀이했다.<br>선분 <u>ㄱ</u> 을 <u>늘이면</u> 다른 선분과 만나게 된다. (선분 연장)<br>주름을 <u>늘이다</u> . (아래로 처지게 하다)<br>김 씨는 벌써부터 점방에 국수를 발처럼 <u>늘여</u> 넣고 있다가....                  |

[오답 해설]

|    |                                                                                                                                 |
|----|---------------------------------------------------------------------------------------------------------------------------------|
| 가늠 | 그 건물의 높이가 <u>가늠</u> 이 안 된다. (어림잡아 헤아림)<br>막연한 <u>가늠</u> 으로 사업을 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br>애초 주제와 분수를 <u>가늠</u> 못한 무모한 짓이었음이 차차로 드러났던 거였다. |
| 갈음 | 그는 웃음으로 답변을 <u>갈음</u> 했다. (대신)<br>다른 방법으로 <u>갈음</u> 해라.<br>가족 인사로 약혼식을 <u>갈음</u> 합니다.                                           |

|    |                                                                                                                                                                                                                                                                                                                  |
|----|------------------------------------------------------------------------------------------------------------------------------------------------------------------------------------------------------------------------------------------------------------------------------------------------------------------|
| 로서 | <p>그것은 교사<b>로서</b> 할 일이 아니다. (지위, 신분, 자격)</p> <p>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b>으로서</b>는 부족한 점이 많다.</p> <p>언니는 아버지의 딸<b>로서</b>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다.</p>                                                                                                                                                                          |
| 로써 | <p>콩<b>으로써</b> 메주를 쑤다. (물건의 재료나 원료)</p> <p>쌀<b>로써</b> 떡을 만든다.</p> <p>말<b>로써</b>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수단이나 도구)</p> <p>꿀<b>로써</b> 단맛을 낸다.</p> <p>대화<b>로써</b> 갈등을 풀 수 있을까?예문보기</p> <p>이제는 눈물<b>로써</b>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p> <p>고향을 떠난 지 올해<b>로써</b> 20년이 된다.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p> <p>시험을 치는 것이 이<b>로써</b> 일곱 번째가 됩니다.</p> |

|     |                                                                                                                                                                                                                                                                                                                                                                         |
|-----|-------------------------------------------------------------------------------------------------------------------------------------------------------------------------------------------------------------------------------------------------------------------------------------------------------------------------------------------------------------------------|
| 다르다 | <p>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u>다르다</u>. (서로 같지 아니하다.)</p> <p>나는 너와 <u>다르다</u>.</p> <p>군자와 소인은 <u>다르다</u>.</p> <p>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u>달라</u>.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p> <p>역시 신문 기자의 센스는 <u>다르구먼</u>.</p> <p>만주로 돈벌이 간다고 훌쩍 집을 나간 바람쟁이 그 아버지의 딸이 과연 <u>다르기는 달랐다</u>.</p>                                                                                                    |
| 틀리다 | <p>답이 <u>틀리다</u>.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p> <p>계산이 <u>틀리다</u>.</p> <p>그 양반의 이야기에 어디 <u>틀린</u> 대목이 있습니까?</p> <p>오늘 이 일을 마치는는 <u>틀린</u> 것 같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p> <p>그는 새벽 5시가 되자 잠자기는 다 <u>틀렸다</u>면서 라디오를 듣다.</p> <p>우리도 그이 얼굴을 한번 볼까 했더니 <u>틀렸구먼</u>.</p> <p>그는 인간이 <u>틀렸어</u>.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옳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p> <p>그 사람은 외모는 출중한데 성격이 <u>틀렸어</u>.</p> |

문 12. 괄호 안에 들어갈 고사 성어로 적절한 것은?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

- [illegible]

[정답] ②

[정답 해설] 운니지차(雲泥之差) :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르는 말.  
= 소양지차(霄壤之差), 천연지차(天淵之差), 천양지차(天壤之差)

예 좀 과장하여 집 외모와 내용은 천양지간, **운니지차**라 해야 할지....

[오답 해설] ① 아비규환(阿鼻叫喚) :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예 시위 중이던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로 도심은 삼시각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 ③ 노기등천(怒氣登天) :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다. = 노기충천(怒氣衝天)  
④ 백난지중(百難之中) :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문 13.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바다 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들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 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류 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양계장은 물론 그 주변 양계장의 닭까지 모조리 폐사시켜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본다. 단 한 마리 닭이 걸려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인공적인 교배로 인해 이들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처럼 다양성의 확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주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게 보조 공학 기기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넓은 이해와 사랑에 대한 기회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 ①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을 대비하고 있다.
- ②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해설] 유추(類推)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한다. 본문은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의 공통점을 통해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14.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 목 : 위탁 교육 운영 계약 체결 의뢰

우리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하반기 부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우리부 → 우리 부                      ② 기여하고져 → 기여하고자  
③ 계획인 바 → 계획인바                ④ 밝히바와 → 밝히 바와

[정답] ②

[정답 해설] ‘-고저’는 어미‘-고자’의 오기(誤記)이다.

-고자 :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오답 해설] ① 각 단어는 띄어 씀

예) 우리 V부 / 우리 V회사 / 우리 V학교

- ③ ‘-ㄴ바’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ㄴ바’ :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예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예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예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예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 ④ ‘바’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격조사 ‘와’의 결합을 통해 확인 가능)  
 ‘바’ : 의존명사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예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예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2. (어미 ‘-을’ 뒤에 쓰여) 일의 방법이나 방도.  
 예 어찌할 바를 모르다  
 예 나아갈 바를 밝히다  
 예 눈 둘 바를 모르다.
3.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예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예 이렇게 억지 부릴 바에는 다 그만두자.
4. (일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는 바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주장을 단언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예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예 나는 작금의 이 사태에 통한의 눈물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문 15. 다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서도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모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상위 고객을 노린 ‘VVIP 회원’을 만들면서 △매년 동남아·중국 7개 지역 왕복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무료 숙박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 등을 서비스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분담에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또 자사 분담으로 제공하고 있던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 축소를 위해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회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무료 공연을 위한 티켓 구매, 항공권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범비 부담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② 비육지탄(脾肉之嘆)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정답]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해설] 기존 회원 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VIP 마케팅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사업비 부담이 커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승자박(自繩自縛)과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② 비육지탄(髀肉之嘆)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의(義)를 굽혀]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다. 당시의 재판은 크게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로 나뉘었다.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옥사는 강도, 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적발, 수색 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송사는 다시 옥송과 사송으로 나뉜다. 옥송은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원(元:원고), 척(隻:피고)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송은 원, 척 간에 재화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변상을 위한 민사 관련 송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었을까?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즉 독립된 사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은 중앙의 몇몇 기관과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과 관찰사가 담당하였다.

- 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② 조선 시대 송사의 종류
- ③ 조선 시대 송사와 육사의 차이점          ④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정답] ④

[정답 해설]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는 언급만 있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 1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ㄴ.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 ㄷ.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 ㄹ. 필리핀의 고산 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 ① ㄱ-ㄷ-ㄴ-ㄹ  
② ㄱ-ㄷ-ㄷ-ㄴ  
③ ㄷ-ㄱ-ㄴ-ㄹ  
④ ㄷ-ㄴ-ㄱ-ㄹ

[정답] ③

[정답 해설] ‘ㄱ’과 ‘ㄷ’ 중에서 ‘ㄷ’에는 도구에 대한 내용만 언급된 것에 비해 ‘ㄱ’에는 도구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까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ㄷ’이 먼저 앞서는 내용이다. ①,②는 제외하고 ③,④를 비교해 보면 ‘ㄱ’과 ‘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ㄴ’ 앞의 ‘그리하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지시어인데, ‘ㄷ’과 ‘ㄱ’의 결과가 ‘ㄴ’이 되므로 ‘ㄱ’이 ‘ㄴ’보다 앞서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ㄹ’은 ‘ㄴ’의 구체적인 예이다. 결국 순서는 ‘ㄷ-ㄱ-ㄴ-ㄹ’이다.



사회자 : 찬성 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에서 준비해 온 입론을 들겠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1 : 저희는 유명인의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유명인’은 그 지명도를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생활’과 ‘알권리’는 찬성 측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명인이 유명하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경우, 그가 사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가 정치 활동의 형태로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또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 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 ②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명하고 있다.
-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 ④ 찬성 측은 입론 단계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정답 해설] 먼저 찬성 측 입론에 이어 반대 측 입론을 듣도록 순서를 통제하며 발언권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사회자는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④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입론 단계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